



〈황금빛 마릴린 먼로〉-1962년, 캔버스에 플리머, 실크 스크린, 유채, 11*145,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

- 대중적 이미지를 예술로 승화시킨 앤디워홀 -
박재현 작가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일찍이 스타에게 주목했다. 그가 스타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현대에 대중들에게 가장 영향을 큰 계층이 스타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앤디 워홀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민 온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을 보였던 그는 피츠버그에서 미술 학위를 받은 후 뉴욕으로 이주한다. 복잡하고 변화한 뉴욕은 앤디 워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뉴욕에서 앤디 워홀은 〈뉴요커〉, 〈보그〉, 〈글래머〉, 〈하퍼스 바자〉 등 유명 패션 잡지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한다. 앤드 워홀은 패션 잡지에 어울리는 일러스트를 고안해낸다. 곧 그의 방식은 성공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앤디 워홀은 상업미술가로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바라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앤디 워홀은 순수 예술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는 예술가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당시 미국의 미술계를 휩쓸고 있던 추상표현주의 방식을 따르고 싶지도 않았다.

1952년 앤디 워홀은 미국 작가 트루먼 카포티의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로 산업용 잉크와 인쇄용 잉크를 사용해 그린 드로잉으로 첫 번째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이후 자신감을 얻은 앤디 워홀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잘 표현했던 대중매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1960년대 미국에서 부상한 팝 아트의 공동 설립자가 된다.

앤디 워홀은 가장 미국적인 것, 즉 일상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회화 작품을 선보이면서 미국 미술계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특히 미국 대중문화 속의 스타의 이미지에 주목했다. 앤디 워홀이 스타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 잡지를 수집하면서 스타에 대한 동경을 키웠다.

앤디 워홀이 대중적인 스타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황금빛 마릴린 먼로〉다. 이 작품은 1950년대 초반 미국의 사진작가 프랭크 포월니가 찍은 상업적인 광고를 가지고 제작했다.

마릴린 먼로는 섹스 스타로 할리우드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녀의 섹시 스타로서의 이미지만 필요했다. 결국 마릴린 먼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죽음은 영화 속 섹스의 화신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버렸고 사후의 명성이 생전의 인기를 뛰어넘었다. 앤드 워홀은 그것을 이 작품에서 표현했다.

부자연스럽고 지루한 미소를 띤 먼로의 초상은 그녀를 둘러싼 광대한 공간 안에 배치했다. 배경을 금빛으로 채움으로서 먼로를 성경의 성녀의 이미지로 끌어올렸다. 실크 스크린 기법에 의해 아치형 입술, 눈 꾸불거리는 머리는 사실주의가 배제되었다. 이 작품에서 붉은 입술, 녹색의 눈, 노란색의 머리는



〈80개의 2달러 지폐-앞면과 뒷면〉-1962년, 캔버스에 실크 스크린, 210*96, 쾰른 루트비히 미술관 소장

황금빛 하늘을 떠돌고 있는 별처럼 표현했다. 이후 많은 작품에서 앤드 워홀은 그녀의 미소를 끊임없이 되풀이 하면서 스타를 소비 상품으로 표현했다.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는 선택한 것은 섹시스타였기 때문은 아니다. 당시 최고의 섹시 스타는 리타 헤이우드였다. 마릴린 먼로는 죽은 후에 섹시의 화신이 되었지만 앤디 워홀은 리타 대신 먼로를 선택한다. 그가 마릴린 먼로에게 주목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만들었던 신화였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스타와 동일시하던 앤드 워홀과

맞았다.

생전에 앤드 워홀은 마릴린 먼로처럼 개인적인 사실을 감추면서 자신을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시켰다. 그는 수없이 많은 인터뷰에서 자신에 관한 전설을 철저하게 만들어냈다. 아버지가 광산에서 살해당했다는 등이다.

그렇다고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에게만 집착한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리우드 스타에 매료되어 스타들의 사진이나 영화 잡지를 정기 구독했던 앤드 워홀은 엘비스 프레슬리, 말론 브랜도, 엘리자베스 테일러, 잉그리드 버그만, 존 웨인 등등 자신이 좋아했던 스타들을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앤디 워홀은 스타를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연극적인 태도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던 그는 웬만한 파티에 참석 할 수 있으면 다 했고 언론에 등장할 수 있는 일이면 대중적인 사건을 놓치지 않고 등장했다.

하지만 앤디 워홀은 광대한 미국에서 모든 파티를 혼자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역을 통해 등장 시키기까지 했다. 첫 번째가 ‘첼시의 소녀들’ 이란 영화 제작자로서 영화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두 번째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이었다. 그는 친구를 자신의 모습을 분장시킨 뒤 앤드 워홀로 활동하게 했을 정도로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화가로서 영화제작자로서 성공을 거두었던 앤디 워홀은 본능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인, 동성애자, 영화 제작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규칙과 체제를 싫어하는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의 호기심과 생각을 과감하게 받아들인 앤디 워홀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처럼 공방 체제로 운영하기 시작한다.

르네상스 화가들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그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그렸고 나머지는 조수들에게 맡겼다. 하지만 바로크의 거장은 르네상스 방식의 공방 운영체제를 바꾸었다. 그는 최초로 스케치를 도안하고 세밀한 구도를 결정했다.

앤드 워홀은 루벤스 방식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하지만 공장은 아니었다. 앤드 워홀은 자신의 승인 없이는 작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유행 경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곧 앤디 워홀의 공방은 살아 있는 예술의 현장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앤드 워홀이 실크 스크린을 작업을 바꾸면서 했던 대표적인 작품이 <80개의 2달러 지폐-앞면과 뒷면>다. 달리는 앤드 워홀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달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다. 현대의 신은 돈이라는 이야기다.

2달러 지폐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실크스크린의 작업을 통해 실제의 돈과 가짜의 돈과 차이가 없다.

앤디 워홀의 이작품은 실제의 돈과 가짜의 돈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가치를 떠나 상업적 가치를 나타낸다. 차이가 있다면 은행권의 80달러보다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이 상업적 가치가 더 높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것을 정확하게 돈으로 표현했다.

앤디 워홀은 자신의 지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지폐를 실제의 돈과 같이 사실적으로 제작했다. 이전의 화가들은 지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의 불일치 허구를 냉정하게 노출하지 못했다. 앤디 워홀이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미술작품의 가치는 미학적인 질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미술품의 가치는 작가의 명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앤디 워홀이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채택한 실크 스크린을 이용한 방식은 현대 미술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르네상스 이후 미술의 개념은 화가의 특별한 독창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으로 미술과 기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술 작품이 어떠한가에 한다는 인식을 깨뜨려버린 것이다. 즉 예술을 위한 미술에서 해방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미술가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앤디 워홀(1928~1987)은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한 유일한 팝 아트 예술가로서 그는 혁명가는 아니었지만 충격의 변화를 만들어갔다. 그는 자신을 위해 온갖 형태의 미디어 작품을 만들면서 시대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했다. 